

농촌 활성화 · 균형발전 위해 '맞손'

농식품부장관 · 김제시장 · 진안군 · 무주군수, 농촌협약 체결... 2026년까지 농촌형 생활SOC시설에 1178억원 집중 투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협약식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을 포함한 전국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장관과 해당 시장·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내 13개 일반농산어촌지역 중 올해까지 7개 시군이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의 농촌협약 선정률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54%이며, 그동안 전북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협약 교육과 컨설팅을 수차례 실시하여 평가의 핵심요소인 농촌협약 예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효과적인 농촌협약 공모 대응을 위한 각종 포럼 및 정책토론회를 실시했으며,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정치권 및 시군과도 긴밀하게 공조했다.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농촌협약식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3개 시군은 협약 기간(2022~26) 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촌형 생활SOC 개발에 1.178억원(국비 8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종합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로 김제시는 민정읍 농촌중심지 등 7개사업에 351억원(국비 246억원), 진안군은 진안읍 농촌중심지 등 7개사업에 421억원(국비 289억원), 무주군은 안성면 농촌중심지 등

9개사업에 406억원(국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형 생활SOC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투자를 집중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 생활편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경수 기자

대된다며, 내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도 철저히 준비해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투자를 집중해, 농촌지역의 보건, 복지,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 생활편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만12세 이하 · 10월 7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시상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이 어린이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미래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에 가면 ???'이 있고, '내가 그린(GREEN)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10월 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www.spectory.net/saemangeum/green)을 통해 참가신청을 한 후, 해당 작품을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 심사단을 구성해 대상 1명(국토교통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새만금개발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우수상 8명(전라북도지사상, 상금 각 30만 원) 등 총 400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11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작품들은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는 행사, 전시회 등에 활용되며, 후에 새만금 방조제 습터에 영구히 전시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전자우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김경수 기자

전북연구원-한국지역문화학회, MOU 체결

지역문화 통해 지역 발전 방안 모색... 관련 세미나 진행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과 한국지역문화학회(회장 정상철)는 지역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과 한국지역문화학회 간 MOU 및 공동세미나는 14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다.

한국지역문화학회는 문화도시,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등 지역문화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와 신진 연구인력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학회이다.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앞으로 한국지역문화학회와 활발한 인력 교류, 지역문화정책에 필요한 정책 발굴, 공동연구, 교육 참여 등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있는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동세미나에서는 전북연구원과 한국지역문화학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유산과 관광의 연계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을 '아시아 오디오 · 사운드 산업의 메카'로

공연장 음향 전문가 앨런 사이즈 전북 방문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공연 음향 전문가 앨런 사이즈 회장을 만나 전북을 오디오 · 사운드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15일 미국 오션 웨이(Ocean Way) 앨런 사이즈(Allen Sides)회장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만나 오디오 · 사운드 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전북을 관련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5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을 방문한 공연 음향 전문가 앨런 사이즈 회장과 전북의 오디오 · 사운드 산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앨런 사이즈 회장은 13일에 열린 제13회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소

리의 예술(The Art of Sound)" 세션에 연사로 초청돼 한국을 방문했다.

앨런 사이즈(Allen Sides) 회장은 마이클 잭슨, 퀸스 존스, 프랭크 슈나트라 등이 녹음했던 오션웨이(Ocean Way) 레코딩 스튜디오의 CEO로 미국 그래미 어워드 엔지니어상을 5회 수상했고, 미국음악 전문잡지인 MIX가 수여하는 기술 부문 TEC상을 9회 수상한 오디오 제품 제작자이며 세계적인 공연장 음향 전문가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오디오 · 사운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와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초복맛이 어르신 원기회복 삼계탕 나눔

도 자원봉사센터 · 전북노인복지관, 사회공헌활동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는 지난 15일 전라북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3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복맛이 녹두삼계탕

을 대접했다고 밝혔다. 해당 삼계탕 나눔은 도센터에서 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지원 사업으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노인복지관이 주관했다. 삼계탕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 들여 마련했다. 특히, 요즘 치솟는 물가로 우리 주변 소외받는 이웃들의 여름철 복달임 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서 초복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마

음의 위안이 되는 삼계탕 나눔이 됐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박오상 센터장은 "앞으로도 참여 기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해 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2023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추진

희망기업 29일까지 각 시군 기업지원부서로 신청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023년 전라북도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월 18~29일까지 후보군을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도지사인증상품은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전북대표 상품으로 선정해 품질을 인정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

'23년 도지사인증상품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품·가공식품, 공산품(소비자용품)으로 기업별 대표 상품 1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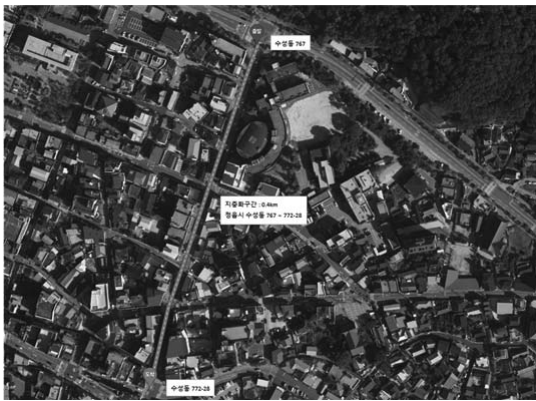
제품 원료 기준으로는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품·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도내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3년 도지사인증상품은 20개 내외 상품을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후 서류와 함께 7월 18~29일까지 해당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전력공급선로 지중화 확정지역 공고(안)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지중화 확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중화 공사의 목적
 - 정읍여자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추진
2. 지중화 확정지역 : 정읍시 수성동 767 ~ 수성동 772-28
3. 지중화 공사일정 : 2022년 9월 ~ 2023년 12월(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4. 신·증설 고객의 지중선 공급시행 기준일 : 공고일로부터 30일 초과일
5. 지중화 지역 약도



6. 지중화 공사의 시행범위
 -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한 도로에 시설되어 있는 가공설비
7. 고객 안내사항
 - 지중화 확정지역의 신·증설 고객은 신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전기공급약관 및 신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지중화 확정지역에서의 신·증설 업무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18일 KEPCO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